

R&L바이오, 터키에 기술수출

성체 지방줄기세포 전문기업 알앤엘바이오는 터키 이스탄불의 디비이락(DB ilac)과 2억500만달러에 달하는 기술수출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7월30일 발표했다.

본계약으로 이어지면 알앤엘바이오는 2011년 미국 셀텍스테라퓨틱스(Celltex Therapeutics)에 이어 2번째로 해외 기술수출에 성공하게 된다.

알앤엘바이오가 발표한 의향서에 따르면, 디비이락이 500만달러의 선금 기술료와 함께 매출액의 최소 15%를 지급하는 등 2억달러의 러닝 로열티를 알앤엘바이오에게 지급한다.

디비이락은 알앤엘바이오의 자가유래 지방줄기세포 기술을 채용해 EU(유럽연합) 및 중동 국가의 환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2/07/30>